

‘한우 송아지브랜드 사업’ 소득증대 한 몫

전남도 전국 최초 시행...마리당 최대 43만원 더 높게 거래 올 사업비 20억 투입 지역 3곳 추가 1만5000두 선발키로

전국 최초로 전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한우 송아지브랜드 사업이 도내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으뜸한우송아지'의 평균 경매가격은 일반 한우송아지에 비해 마리당 최대 43만원 더 높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한우 개량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018

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전남도와 한국축육개발협회, 사군, 지역축협 등이 참여해 올해까지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전남 으뜸한우송아지'는 '전남 으뜸한우(우량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시군이 진자확인고 선발기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선정된 품질이 우수한 송아지

다. 전남도는 전남 한우송아지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해 선발된 으뜸한우·송아지의 키표에 장식하는 등 일반 한우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올해는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기존 고흥, 강진, 곡성, 화순에서 영암, 무안, 장성 등 3곳을 추가해 1만5000두의 '전남 으뜸한우송아지'를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는 지난 2018년 '전남 으뜸한우송아지'로 선발된 송아지의 도축장 출하시기(28~32개월령)로, 도체중을 비

롯 중심단면적, 등지방두께, 등급출현율 등 성적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돼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가능해 앞으로 고품질 우량 송아지 브랜드화로 도내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우 농가들은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에 참여해 전남산 한우 차별화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코로나 조기 극복 적극 돕겠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승욱 강진군수, 정기호 강진의료원장, 강진군민 등이 4일 강진의료원에서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을 환영하고 있다. 광주지역 입원 병상이 부족해지자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강진의료원에 입원했다. <전남도 제공>

9일간 77명 확진 광주시, 병상 부족 우려

전남도, 확진자 수용·의사 지원
지난 6월 27일 이후 9일간 무려 77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광주에서 발생하면서 병상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가 43명, 무증상자가 34명으로 아직까지 일부 병상이 남아있으나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광주시의 판단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남과 전북의 지원을 받아 국가치료병상 광주 17개(전남대병원 7개, 조선대병원 10개), 전북 11개(전북대병원 10개, 원광대병원 1개) 등 28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 74개(2인 1실), 전남 강진의료원 14개, 순천의료원 6개, 전북 군산의료원 10개 등 102개를 확보한 상태다. 모두 132개 병상 가운데 이미 79개 병

상이 사용중에 있어 잔여 병상은 53개로 조사됐다. 광주의 경우 국가치료병상은 조선대병원 1곳, 감염병전담병원은 빛고을전남대병원 16곳만이 남아 있다. 광주의 확산세가 계속될 것을 예상한 전남도는 우선 지난 4일 광주 확진자 5명을 순천의료원(1명), 강진의료원(4명)에 각각 분산 수용했다. 전남도는 광주시에 5명의 의사를 이미 지원한 바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일 입원환자와 함께 도착한 김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에게 "광주시에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도민들은 불안감을 내려놓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무더위쉼터'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화

전남도는 본격적인 폭염을 대비해 '무더위쉼터'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실내 무더위 쉼터 7480개소에 대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더위 쉼터에 대해 ▲수용 인원의 50% 이하 운영 ▲밀접 접촉 최소화 ▲마스크 의무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해 1일 2회 체온측정 ▲소독제 비치 ▲외부인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밀접 접촉 최소화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도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위주로 야외 무더위 쉼터(공원, 하천 둔치, 교량 하부 등) 690개소를 추가로 발굴해 별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와 함께 취약계층 16만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건 전문인력과 노인돌보미 등 재난도우미 2만2000명을 운영해 전파로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 그늘막, 지붕자열도장, 도시숲 등 장기적인 폭염 저감시설 설치와 함께 폭염취약계층·선별진료소에 대한 의료진·방방용품 지원, 기존 축사 방·난방 시설 개선과 고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대응장비 지원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에 34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병욱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강화

광주시 8월 3일부터 8만~9만원 오전 8시~오후 8시 앱 신고가능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 4만원이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는 광주시내 15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4대 불법 주정차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에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추가했다. 광주시는 또 철저한 단속을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중이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시민 누구나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뒤 '5대 불법주정차'로 설정하고 위반유형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수입금 시민이 감시한다

수입금공동관리위 시민위원 참여
광주시는 시내버스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감시 가능 강화를 위해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에 시민위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5일 밝혔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배분, 표준운송원가의 정산, 광고수입 및 기타 부대사업의 수입 처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공무원과 노사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시는 기존 9명의 위원에 시의원 2명, 시민위원 1명을 신규 위촉해 12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광주시가 마련한 준공영제 운영 계획 가운데 '준공영제 운영 시민 참여 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위원 위촉은 시의원의 경우 광주시의회 추천을 받고, 시민위원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뒤 위촉할 계획이다. 시민위원 모집 공고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만 19세 이상의 광주시민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심이 많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당론 위반' 김태영 광주 서구의장 당직 박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당론을 어기고 제8대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태영 의원에 대해 시당 상무위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5일 밝혔다. 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면 시당 상무위원을 당연직으로 맡게 되는데, 김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상무위원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애초 내부 경선을 통해 후반기 의장 후보로 오광교 의원을 내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내부 경선 결정을 어기고 의장 선거 후보로 출마해 재석 의원 13명 중 8명의 지지를 받아 의장

으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비민주당 소속 4명 가운데 비민주당 소속 의원이 모두 김 의원을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4명이 당론을 어긴 셈이다. 이를 두고 시당은 "당헌·당규를 어긴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김 의원이 당규를 위반한 만큼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시당 관계자는 "당직 직위해제 조치는 징계 심사 전이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직을 박탈하는 선 조치"라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 062-412-2800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광주에서 30~40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